

[ 영화 ]



새영화

김씨표류기

표류男 - 은둔女가 펼치는 웃음과 감동의 코미디물

서울 한복판 한강 뱀섬에 표류하게 된 남자와 3년째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코미디물이다.

뱀섬에 표류한 남자는 자신을 결심하고 한강에 뛰어들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뱀섬에 표류하게 된 그는 세상을 향해 구조 요청을 하지만 세상은 무관심하고 일단 섬에서 살아 보기로 결정한 후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러저럭 생존해 나간다.

파퓰러했던 상처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된 후 3년 동안 방 안에서만 생활해온 정연은 유일한 취미인 사진 촬영에 열중하다 뱀섬에서 움직이는 이상한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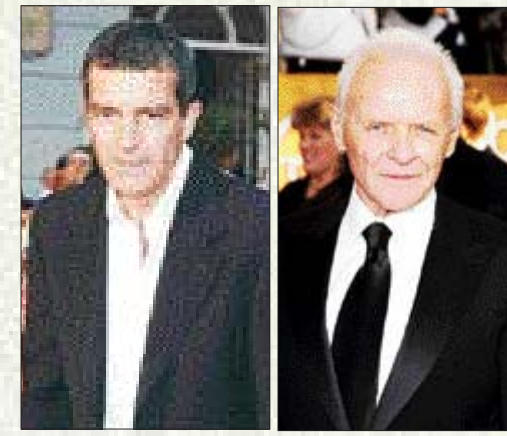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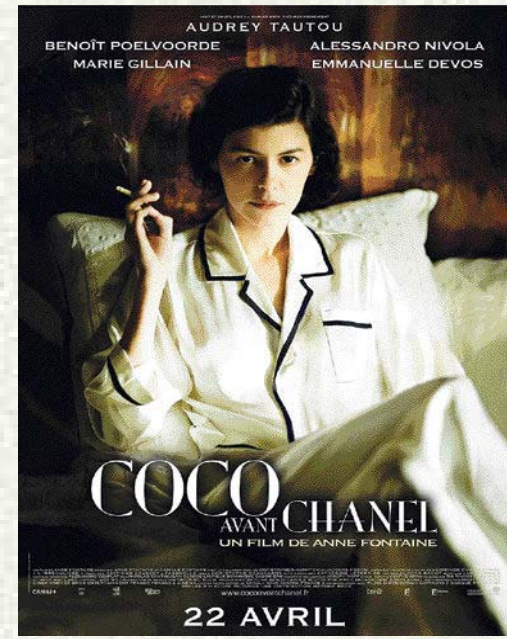
이혜영 감독과 함께 찍은 '천하장사 마돈나'로 데뷔한 이해준 감독 작품으로 이 감독은 시나리오도 직접 썼다.

연기와 배우 정재영이 상급으로 출연,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며 정연 역으로 정려원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특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표류인을 연기한 정재영의 연기가 압권이라는 평이다.

(12세 이상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토니오 반데라스 앤소니 홉킨스

역사속 인물들 영상으로 부활

샤넬·클린턴·만델라·헤밍웨이 등 소재 다양 모건 프리먼·앤소니 홉킨스 유명 배우 출연

실존 인물들이 살아 돌아온다.

최근 해의 영화계에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역사속 인물들을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다. 정치인, 문화·예술인 등 다루는 면면도 다채롭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스티븐 스필버그 등 유명 감독과 모건 프리먼, 앤소니 홉킨스 등 연기와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링컨·샤넬·빌 클린턴 소재 다양

세계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삶은 두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 '아멜리에'로 유명한 오드리 토투가 주연을 맡은 '코코 야방 샤넬'이 화제의 작품으로 에디트 피아프의 일대기를 다뤄 마리오 코티아르에게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안긴 '라 비 앙 로즈'를 만든 안 폰테 감독 작품이다.

최근 개막한 칸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될 안 퀸 감독의 '코코 샤넬과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샤넬과 불같은 사랑을 나눴던 러시아 출신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들의 삶도 속속 영화로 제작 중이다.

우선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링컨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링컨'이 눈에 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며 주인공 링컨 역에는 '선더러 리스트'의 리암 니슨이 낙점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삶 역시 영화화 되고 있다.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의 관계를 그린 정치영화 '특별한 관계'가 화제의 작품으로 화려한 캐스팅이 눈길을

끈다. 데니스 퀴이드가 클린턴으로 분하고 줄리언 무어가 힐러리로 출연한다. 마이클 신은 토니 블레어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앤소니 홉킨스·모건 프리먼 등 출연

배우에서 감독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를 주인공으로 한 '휴먼 패터'를 제작한다.

영국 기자 존 칼린슨이 쓴 '적과의 경계: 넬슨 만델라와 국가를 만든 경기'를 원작으로 한 '휴먼 패터'는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1995년 럭비월드컵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흑인과 백인이 섞인 팀이 대회에 나가 첫 우승을 거머쥘 이야기를 그린다.

넬슨 만델라 역은 연기와 배우 모건 프리먼이 맡았으며 럭비팀 주장으로는 맷 데이먼이 출연했다.

그밖에 크리스 콜롬버스 감독은 1968년 암살당한 로버트 F. 케네디의 삶을 그린 영화를 준비 중이다.

전설 속 음악인 등 유명 예술인들의 삶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배우 앤디 가르시아가 제작, 각본, 연출을 맡은 '헤밍웨이 & 푸엔테스'에서는 연기와 배우 앤소니 홉킨스가 헤밍웨이로 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의 모델이자 오랫동안 헤밍웨이의 낚시배를 몰았던 푸엔테스와 헤밍웨이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살바도르 달리로 분한다. 영화 '달리'는 '톨 레미더'를 만들었던 사이언 웨스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달리의 예술세계와 기행 등을 담게 된다.

리들 앤 블루스의 대가 마빈 개이의 영화는 '섹슈얼 힐링'과 '쿨!' 두 편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레게의 대부 밥 말리의 영화도 탄생 65주기를 2010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준비 중이다.

그밖에 '오즈의 마법사'로 유명한 주디 겔렌드와 스티브 맥킨의 삶도 영화로 만들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arge advertisement for 'Km (주)국민법률경매' (Km National Law Auction) listing various leg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